

한민족의 잃어버린 문화와 역사를 되찾는

한민족과 인류의 창세역사와 원형문화 원전

환단고기

Book 콘서트

원전原典 강독 자료

초청 강연자: 안경진
『환단고기』 완역본 역주자

차
레

2.... ▶ 삼국유사 고조선古朝鮮(왕검조선王儉朝鮮)

5.... ▶ 천부경天符經 6.... ▶ 삼일신고三一神誥 8.... ▶ 참전경參佺經

9.... ▶ 『신당서新唐書』 「동이열전」 고구려
▶ 광개토태왕비문에 실려 있는 고구려 9백년

10.... ▶ 삼성기상上 12.... ▶ 삼성기하下

16.... ▶ 단군세기 서문 20.... ▶ 서효사誓效詞 21.... ▶ 염표문念標文

22.... ▶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
▶ ‘宇宙의 主宰者’ 三神上帝님의 造化 權能
▶ 진·선·미는 삼신三神의 창조創造 덕성德性

23.... ▶ 태백일사 환국본기

24.... ▶ 태백일사 신시본기 환桓·단檀·한韓의 의미

24.... ▶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 선인仙人 발귀리發貴理의 송가頌歌

25.... ▶ 고조선 신교 문화와 책력冊曆의 시원始原

26.... ▶ 태백일사 고구려국본기 신교와 유불선의 정수 집대성: 다물홍방가

한민족의 역사 고향, 역사 왜곡의 핵심 원전

『삼국유사三國遺事』 (1281년, 충렬왕 7년)

일연一然 (1206~1289)

「고조선古朝鮮(왕검조선王儉朝鮮)」

위서 魏書에 운 乃往二千載에

유단군왕검 有壇君王儉이 입도아사달 立都阿斯達하시고

개국 開國하사 호조선 號朝鮮하시니 여고동시 與高同時니라.

◎ 『위서魏書』는 오늘까지 남아 있는 진수陳壽(서진西晉, 233~297)와 위수魏收(북제北齊, 506~572)가 지은 『위서』가 아니라,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진수와 같은 시대 사람인 왕침王沈의 『위서魏書』로 보고 있다.

고기 古記에 운 昔에 유환국 有桓國(위제석야 謂帝釋也)하니

서자환웅 庶子桓雄이 수의천하 數意天下하야

탐구인세 貪求人世어늘 부지자의 父知子意하시고

하시삼위태백 下視三危太伯하시니 가이홍익인간 可以弘益人間이다.

내수천부인삼개 乃授天符印三箇하사 견왕이지 遣往理之하시니라.

웅 雄이 솔도삼천 率徒三千하사

강어태백산정 降於太伯山頂(금묘향산 今妙香山) 신단수하 神壇樹下하시니

위지신시 謂之神市오 是謂桓雄天王也시니라.

장풍백우사운사 將風伯雨師雲師하시고

이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하시며

◎ 『고기古記』: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일연 당시에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단군기檀君記』, 『해동고기海東古記』, 『삼한고기三韓古記』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위제석야 謂帝釋也 : '제석'은 불교 용어로 '석가제마인다라釋迦提婆因陀羅'를 줄여서 이르는 말이다. '수미산의 꼭대기 도리천의 임금'이란 뜻으로 석제환인다라釋提桓因陀羅, 천제석天帝釋이라고도 한다. 일연이 환국(환인)을 불교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다.

◎ 금묘향산 今妙香山: 태백은 맑은 산 또는 큰 산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 영산靈山으로 받드는 산을 별칭으로 태백산이라고도 불렀다. 보통 태백은 백두산을 가리키나 일연은 묘향산으로 잘못 보았다.

범주인간삼백육십여사 **제세이화**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하사** 在世理化하시니라.

시 유 일 웅 일 호 동 혈 이 거 상 기 우 신 웅
時에 **有一熊一虎**가 同穴而居러니 常祈于神雄하야

원화위인 시 신유영애일주
願化爲人이어늘 時에 神遺靈艾一炷와

산 이 십 매 왈 이 배 식 지 불 견 일 광 백 일
蒜二十枚하시고 曰「爾輩食之하고 不見日光百日이면

변득인형 옹호득이식지 기삼칠일
便得人形하리라.」熊虎得而食之하고 忌三七日이러니

옹득녀신 호불능기 이부득인신 **경인년**
熊得女身이나 虎不能忌하야 而不得人身이다. (BCE 231년)

옹녀자 무여위혼고 매어단수하
熊女者無與爲婚故로 每於壇樹下에

주원유임 옹 내가 화 이 혼 지
呪願有孕이어늘 **雄이乃假化而婚之**하사

잉생자 호왈단군왕검
孕生子하시니 **號曰壇君王儉**이시니라.

이당고즉위오십년경인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에

도평양성 금서경 시칭조선
都平壤城(今西京)하시고 始稱朝鮮하시니라.

우이도어백악산아사달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하시니

우명궁홀산 우금미달
又名弓忽山이오 又今彌達이니

어국일천오백년
御國一千五百年하시니라.

주호왕 즉위 기묘 봉기자어조선
周虎王卽位己卯에 **封箕子於朝鮮**하니

단군 내이장당경 후 환은어아사달
壇君이乃移藏唐京이라가 後에 還隱於阿斯達하사

위산신 수일천구백팔세
爲山神하시니 壽는 一千九百八歲시니라.

○ 영애(靈艾, 산쮸: “영애”는 신령스런 쮸, “산”은 마늘로 모두 갖가지 질병 치료에 쓰인다.

○ 당고(唐高: 고려 3대 정종의 이름이 요충여서 이를 피하기 위해 고고라 쓴 것이다.

○ 금서경(今西京: 일연은 단군왕검이 처음 정한 수도를 당시 고려의 서경이었던 평양으로 보았다.



당 배구전 운 고려
唐裴矩傳에云高麗는

본고죽국
本孤竹國(금해주 今海州)이니

주이봉기자위조선 한분치삼군
周以封箕子爲朝鮮하고漢分置三郡하니

위현토낙랑대방 북대방 통전 역동차설
謂玄菟樂浪帶方(北帶方)이라하고通典도亦同此說이라.

배구裴矩는 수나라 때의 공신으로 복제, 북주, 수, 당의 4왕조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다. 『수서隋書』 「배구전裴矩傳」에 “고죽국은 고구려 땅이다[高麗之地, 本孤竹國也].”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배구전」을 가리킨다.

『史記』 「宋微子世家」箕子朝鮮

무왕기극은방문기자
武王既克殷, 訪問箕子...

어서무왕내봉기자어조선이불신야
於是武王, 乃封箕子於朝鮮, 而不臣也.

『삼국유사』 「고조선」에 기록된 잘못된 우리 역사

1. 한민족의 시원 역사인 ‘환국-배달-고조선’의 7천년 왕조사를 ‘환인-환웅-단군’이라는 3대 가족사로 오도하였다.
2.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昔有桓國]’라는 『고기古記』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제석을 말한 다[謂帝釋也]’라는 주석을 붙여 환국을 불교신화 속의 신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에게 한국사 날조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일본은 이 주석을 악용하여 ‘환국이라는 나라의 역사[昔有桓國]’를 ‘환인이라는 인물사[昔有桓因]’로 전락시켰다.
3. 배달 시대에 한민족으로 귀화하고자 한 두 부족인 웅족과 호족을 ‘한 마리 곰(一熊)과 한 마리 호랑이(一虎)로 표현하였고, ‘동물이 사람으로 화하였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실존 역사가 아니라 신화로 여기게 만들었다.
4. 한 분 ‘단군왕검이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1,908세에 죽어 신선이 되었다’라고 하여 고조선사를 신화로 만들었다.
5. 단군왕검이 도읍한 만주의 ‘아사달’을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설정함으로써, 동북아 대륙에 있던 대제국 단군조선을 한반도에 국한된 소국으로 전락시켰다.
6. ‘채위 말기에 단군이, 중국이 임명한 기자箕子라는 새 왕에게 밀려 장당경으로 옮겨다’라고 잘못 기록하였다. 중국사서의 왜곡된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한국사의 국통맥을 고조선-기자조선-한사군으로 왜곡시킨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단고기』 보급판 46쪽 참고)

한민족 창세 역사와 인류 원형 문화의 3대 경전

『천부경天符經』 팔십일자八十一字

일 시 무 시 일
一始無始一이오

석 삼 극 무 진 본
析三極無盡本이나라.

천 일 일 지 일 이 인 일 삼
天一一地二人三이니

일 적 십 거 무 궤 화 삼
一積十鉅无價化三이나라.

천 이 삼 지 이 삼 인 이 삼
天二三地二三人二三이니

대 삼 합 육 생 칠 팔 구
大三合六生七八九하고

운 삼 사 성 환 오 칠
運三四成環五七이나라.

일 묘 연 만 왕 만 래
一妙衍萬往萬來라도

용 변 부 동 본
用變不動本이나라.

본 심 본 태 양 앙 명
本心本太陽昂明하고

인 중 천 지 일
人中天地一이니

일 종 무 종 일
一終無終一이나라.

삼일신고三一神誥

第一章 虛空 (三十六字)

제왈 이오가 중 창창 비천 현현 비천
 帝曰 爾五加와 众아 蒼蒼이 非天이며 玄玄이 非天이라
 천 무형질 무단예 무상하사 방
 天은 兪形質하며 兪端倪하며 兪上下四方하고
 허허공공 무부재 무불용
 虛虛空空하야 兪不在하며 兪不容이나라.

第二章 一神 (五十一字)

신 재무상일위 유대덕대혜대력
 檀이 在兪上一位하사 有大德大慧大力하사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生天하시고 主無數世界하시며 造炁炁物하시니
 섬진 무루 소소령령 불감명량
 纖塵 兪漏하며 昭昭綿綿하사 不敢名量이라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강재이뇌
 聲氣願禱면 絶親見이리니 自性求子면 降在爾剎시나라.

第三章 天宮 (四十字)

천 신국 유천궁 계만선 문만덕
 天은 檀國이라 有天宮하야 階萬善하며 門萬德하니
 일신유거 군령제철 호시 대길상대광명처
 一檀攸居오 群詔諸喜이 護侍하나니 大吉祥大光明處라
 유성통공완자 조 영득쾌락
 惟性通功完者라야 朝하야 永得快樂이나라.

第四章 世界 (七十二字)

이관삼열성진 수무진 대소 명암 고티락
 爾觀森列星辰하라 數兪盡하고 大小와 明暗과 苦樂이
 부동 일신 조군세계 신 칙일세사자
 不同하나라. 一檀이 造群世界하시고 檀이 勅日世使者하사
 할칠백세계 이지자대 일환세계
 牽七百世界하시니 爾地自大나 一丸世界나라

중 화 진 탕 해 환 육 천 내 성 현 상
中火震盪하야 海幻陸遷하야 乃成見像하나니라.

신 가 기 포 저 후 일 색 열
檀이呵氣包底하시고 煦日色熱하시니

행 저 화 유 재 물 번 식
行者化游栽의物이繁殖하나니라.

第五章 人物 (一百六十七字)

인 물 동 수 삼 진 유 중 미 지
人物이同受三眞이나 惟衆은迷地하야

삼 망 착 근 진 망 대 작 삼 도 왈 성 명 정
三妄이着根하고 眞妄이對하야 作三途니라. 曰性命精이니

인 전 지 물 편 지 진 성 선 무 악
人은全之하고 物은偏之니라. 眞性은善兇惡하니

상 칠 통 진 명 청 무 탁 중 칠 지
上喜이通하고 眞命은清兇濁하니 中喜이知하고

진 정 후 무 박 하 칠 보 반 진 일 신
眞精은厚兇薄하니 下喜이保하나니 返眞하얀 一檀이니라.

왈 심 기 신 심 의 성 유 선 악 선 복 악 화
曰心氣身이니 心은依性이나 有善惡하니 善福惡禍하고

기 의 명 유 청 탁 청 수 탁 요
氣는依命이나 有清濁하니 清壽濁夭하고

신 의 정 유 후 박 후 귀 박 천
身은依精이나 有厚薄하니 厚貴薄賤이니라.

왈 감 식 축 진 성 십 팔 경
曰感息解이니 轉成十八境하니

감 희 구 애 노 탐 염 식 분 란 한 열 진 습
感엔喜懼哀怒貪厭이오 息엔芬爛寒熱震濕이오

축 성 색 취 미 음 저 중 선 악 청 탁 후 박
解엔聲色臭味淫抵니라 衆은善惡과 清濁과 厚薄이

상 잡 중 경 도 임 주 타 생 장 소 병 물 고
相雜하야 從境途任走하야 墮生長肖病歿의苦하고

칠 지 감 조 식 금 축 일 의 화 행
喜은止感하며 調息하며 禁解하야 一意化行하고

개 망 즉 진 발 대 신 기 성 통 공 완 시
改妄卽眞하야 發大神機하나니 性通功完이是니라.

참전경 參佺經

대시 철인 재상 주인간삼백육십여사
 大始에 哲人이 在上하사 主人間三百六十餘事하시니

기강령 유팔조 왈성 왈신 왈애 왈제 왈화
 其綱領이 有八條하니 曰誠과 曰信과 曰愛와 曰濟와 曰禍와

왈복 왈보 왈응
曰福과 曰報와 曰應이라

성자 충심지소발 혈성지소수 유육체사십칠용
 誠者는 衷心之所發이오 血誠之所守니 有六體四十七用하고

신자 천리지필합 인사지필성
 信者는 天理之必合이오 人事之必成이니

유오 단삼십오부
 有五團三十五部하고

애자 자심지자연 인성지본질
 愛者는 慈心之自然이오 仁性之本質이니

유육범사십삼위
 有六範四十三圍하고

제자 덕지겸선 도지뢰급 유사규삼십이모
 濟者는 德之兼善이오 道之賴及이니 有四規三十二模하고

화자 악지소소 유육조사십이목
 禍者는 惡之所召니 有六條四十二目하고

복자 선지여경 유육문사십오호
 福者는 善之餘慶이니 有六門四十五戶하고

보자 천신 보악인이화 보선인이복
 報者는 天神이 報惡人以禍하고 報善人以福하니

유육계삼십급
 有六階三十及하고

응자 악수악보 선수선보 유육과삼십구형
 應者는 惡受惡報하고 善受善報하니 有六果三十九形이라.

고 천수불언 척강주호 지아자창
 故로 天雖不言이시나 陟降周護하시나니 知我者는 昌하고

구시즉실 일이참전 전인수계
 求是則實이니 一以參佺하야 全人受戒니라.

『신당서新唐書』 『동이열전』 고구려

『고구려비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27년조

고구려비기 왕 불급구백년 당유팔십대장멸지
高句麗秘記曰: 不及九百年, 當有八十大將滅之

『고구려비기』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900년을 넘지 못하고 팔십 먹은 장수에게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광개토태왕비문에 실려 있는 고구려 9백년

광개토태왕비문의 9백년 역사는 오직 환단고기만이 증명해준다

환지십칠세손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
還至十七世孫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이구등조호위영락태왕
二九登祚, 號爲永樂太王.

다시 17세손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에 이르렀는데, 18세(391년)에 왕위에 오르셔서 칭호를 영락태왕永樂太王이라 하셨다.

『환단고기』
『대무외기』

이구등조호위영락태왕

二九登祚 爲 永樂太王

광개토경평안호태왕

廣開土境 平安好太王

환지십칠세손국강상

還至十七世孫國岡上

『삼성기三聖紀』상上

안함로安舍老 (579~640)

오 환 건 국 최 고
吾桓建國이最古라.

유 일 신 재 사 백 력 지 천 위 독 화 지 신
有一神이在斯白力之天하사爲獨化之神하시니

광 명 조 우 주 권 화 생 만 물 장 생 구 시
光明照宇宙하시고權化生萬物하시며長生久視하사

항 득 쾌 락 승 유 지 기 묘 계 자 연
恒得快樂하시며乘遊至氣하사妙契自然하시며

무 형 이 현 무 위 이 작 무 언 이 행
無形而見하시며無爲而作하시며無言而行하시니라.

일 강 동 녀 동 남 팔 백 어 흑 수 백 산 지 지
日에降童女童男八百於黑水白山之地하시니

어 시 환 인 역 이 감 군 거 우 천 계
於是에桓因이亦以監羣으로居于天界하사

부 석 발 화 시 교 숙 식 위 지 환 국
掬石發火하사始教熟食하시니謂之桓國이오

시 위 천 제 환 인 씨 역 칭 안 파 견 야
是謂天帝桓因氏이시니亦稱安巴堅也시니라

전 칠 세 연 대 불 가 고 야
傳七世로대年代는不可考也니라.

후 환 응 씨 계 흥 봉 천 신 지 조
後에桓雄氏繼興하사奉天神之詔하시고

강 우 백 산 흑 수 지 간 착 자 정 여 정 어 천 평
降于白山黑水之間하사鑿子井女井於天坪하시고

획 정 지 어 청 구 지 천 부 인 주 오 사
劃井地於靑邱하시며持天符印하시고主五事하사

재 세 이 화 흥 익 인 간 입 도 신 시
在世理化하사弘益人間하시며立都神市하시고

국 칭 배 달 택 삼 칠 일 제 천 신
 國稱倍達하시니라. 擇三七日하사 祭天神하시며
 기 신 외 물 폐 문 자 수 주 원 유 공
 忌慎外物하사 閉門自修하시며 呪願有功하시며
 복 약 성 신 획 괘 지 래 집 상 운 신
 服藥成仙하시며 劃卦知來하시며 執象運神하시니라.

(…중략…)

전 십 팔 세 역 일 천 오 백 육 십 오 년
 傳十八世하사 歷一千五百六十五年이러라.

(…중략…)

병 진 주 고 시 개 국 호 위 대 부 여
 丙辰周考時에 改國號하사 爲大夫餘하시고
 자 백 약 우 사 어 장 당 경 잉 설 팔 조
 自白岳으로 又徙於藏唐京하사 仍設八條하사

(…중략…)

임 술 진 시 시 신 인 대 해 모 수 기 어 응 심 산
 壬戌秦始時에 神人大解慕漱가 起於熊心山하시니라
 정 미 한 혜 시 연 추 위 만 질 거 서 비 일 우
 丁未漢惠時에 燕酋衛滿이 竊居西鄙一隅할새
 번 한 준 위 전 부 적 입 해 이 망
 番韓準이 爲戰不敵하야 入海而亡하니
 자 차 삼 한 소 솔 지 중 태 천 민 어 한 수 지 남
 自此로 三韓所率之衆이 殆遷民於漢水之南하고
 일 시 군 용 경 병 어 요 해 지 동
 一時羣雄이 競兵於遼海之東이러니
 지 계 유 한 무 시 한 이 병 멸 우 거
 至癸酉漢武時하야 漢이 移兵하야 滅右渠할새
 서 압 록 인 고 두 막 한 창 의 흥 병 역 칭 단 군
 西鴨綠人高豆莫汗이 倡義興兵하사 亦稱檀君하시고
 을 미 한 소 시 진 거 부 여 고 도 칭 국 동 명
 乙未漢昭時에 進據夫餘故都하사 稱國東明하시니

시 내 신 라 고 양 야
是乃新羅故壤也라.

지 계 해 춘 정 월 고 추 모 역 이 천 제 지 자
至癸亥春正月하야 高鄒牟가 亦以天帝之子로

계 북 부 여 이 흥 복 단 군 구 장
繼北夫餘而興하사 復檀君舊章하시고

사 해 모 수 위 태 조 시 건 원 위 다 물
祠解慕漱하사 爲太祖하시고 始建元하사 爲多勿하시니

시 위 고 구 려 시 조 야
是爲高句麗始祖也시니라.

『삼성기三聖紀』하下

원동중元董仲(?~?)

인 류 지 조 왈 나 반
人類之祖를 曰那般이시니

초 여 아 만 상 우 지 처 왈 아 이 사 비
初與阿曼으로 相遇之處를 曰阿耳斯庇라.

몽 득 천 신 지 교 이 자 성 혼 례
夢得天神之教하사 而自成昏禮하시니

즉 구 환 지 족 개 기 후 야
則九桓之族이 皆其後也라.

석 유 환 국 중 부 차 서 언
昔에 有桓國하니 衆이 富且庶焉이라.

초 환 인 거 우 천 산 득 도 장 생
初에 桓仁이 居于天山하사 得道長生하사

거 신 무 병 대 천 선 화 사 인 무 병
擧身無病하시며 代天宣化하사 使人無兵하시니

인 개 작 력 자 무 기 한
人皆作力하야 自無飢寒이러라.

전혁서 환인 고시리 환인 주우양 환인
傳赫胥桓仁·古是利桓仁·朱于襄桓仁.

석제임 환인 구을리 환인 지지위리 환인
釋提壬桓仁·邱乙利桓仁하야 至智爲利桓仁하니

혹알 단인
或曰檀仁이라.

고기 운 파내류지산하 유 환인 씨지국
古記에云「波奈留之山下에 有桓仁氏之國」하니

천해이동지 지역칭파내류지국 기지광 남북오만리
天海以東之地를 亦稱波奈留之國이라. 其地廣이 南北五萬里오

동서이만여리 총언환국 분언즉비리국 양운국
東西二萬餘里니 摠言桓國이오 分言則卑離國과 養雲國과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루국 일운필나국
寇莫汗國과 勾茶川國과 一羣國과 虞婁國一云畢那國과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일운직구다국 사납아국
客賢汗國과 勾牟額國과 賣勾餘國一云稷白多國과 斯納阿國과

선패국 일칭시위국 혹운통고사국 수밀이국
鮮裨國一稱豕韋國或云通古斯國과 須密爾國이니

합십이국야 천해 금알북해
合十二國也라. 天海는 今日北海라.

전칠세 역년 공삼천삼백일년
傳七世하야 歷年이 共三千三百一年이오

혹운육만삼천일백팔십이년 미지숙시
或云六萬三千一百八十二年이라 하니 未知孰是라.

환국지말 안파견 하시삼위태백
桓國之末에 安巴堅이 下視三危太白하시고

개가이홍익인간 수가사지
皆可以弘益人間일새 誰可使之오 하신대

오가첨왈서자 유환웅 용겸인지
五加僉曰庶子에 有桓雄이 勇兼仁智하고

상유의어역세이홍익인간
嘗有意於易世以弘益人間하오니

가견태백이리지 내수천부인삼종
可遣太白而理之니이다 하야늘 乃授天符印三種하시고

잉 칩 왈 여 금 인 물 업 이 조 완 의
仍敕曰 如今에 人物이 業已造完矣니

군 물 석 쉼 로 술 중 삼 천 이 왕 개 천 입 교
君은 勿惜厥勞하고 率衆三千而往하야 開天立敎하고

재 세 이 화 위 만 세 자 손 지 흥 범 야
在世理化하야 爲萬世子孫之洪範也이다.

시 유 반 고 자 호 기 술
時에 有盤固者가 好奇術하야

욕 분 도 이 왕 칭 내 허 지
欲分道而往으로 請하니 乃許之하시니라

수 적 재 보 술 십 간 십 이 지 지 신 장 여 공 공
遂積財寶하고 率十千十二支之神將하고 與共工.

유 소 유 묘 유 수 해 지 삼 위 산 남 립 동 굴
有巢·有苗·有燧로 偕至三危山拉林洞窟하야

이 립 위 군 위 지 제 건 시 위 반 고 가 한 야
而立爲君하니 謂之諸畎이오 是謂盤固可汗也라.

어 시 환 응 술 중 삼 천
於是에 桓雄이 率衆三千하사

강 우 태 백 산 정 신 단 수 하 위 지 신 시
降于太白山頂神壇樹下하시니 謂之神市오

시 위 환 응 천 왕 야 장 풍 백 우 사 운 사
是謂桓雄天王也시니라 將風伯·雨師·雲師하시고

이 주 곡 주 명 주 형 주 병 주 선 악
而主穀·主命·主刑·主病·主善惡하시며

범 주 인 간 삼 백 육 십 여 사 재 세 이 화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하사 在世理化하사

홍 익 인 간
弘益人間하시니라.

시 유 일 응 일 호 동 립 이 거 상 기 우 신 단 수
時에 有一熊一虎가 同隣而居러니 嘗祈于神壇樹하야

원 화 위 신 계 지 맹 응 문 지 왈 가 교 야
願化爲神戒之氓이어늘 雄이 聞之曰可敎也라 하시고

내 이 주 술 환 골 이 신 선 이 신 유 정 해
乃以呪術로換骨移神하실새先以神遺靜解로

영 기 애 일 주 산 이 십 매 계 지
靈其艾一炷와蒜二十枚하시고戒之하야

왈 이 배 식 지 불 견 일 광 백 일
曰爾輩食之하라不見日光百日이라야

변 득 인 형 웅 호 이 족 개 득 이 식 지
便得人形이라.熊虎二族이皆得而食之하고

기 삼 칠 일 웅 능 내 기 한
忌三七日이러니熊은能耐飢寒하야

준 계 이 득 의 용 호 즉 방 만 불 능 기
遵戒而得儀容하고虎則放慢不能忌하야

이 부 득 선 업 시 이 성 지 불 상 약 야
而不得善業하니是는二性之不相若也라

웅 녀 자 무 여 위 귀 고 매 어 단 수 하
熊女者無與爲歸故로每於壇樹下에

주 원 유 잉 내 가 화 위 환 이 사 여 지 위 혼
呪願有孕이어늘乃假化爲桓而使與之爲婚하사

회 잉 생 자 유 장
懷孕生子에有帳하시니라

... (중략) ...

사 마 천 사 기 왈 제 후 함 래 빈 종
司馬遷史記에曰「諸侯咸來賓從이로대

이 치 우 최 위 포 천 하 막 능 별
而蚩尤가最爲暴하야天下莫能伐이라」한대

헌 원 섭 정 치 우 유 형 제 팔 십 일 인 병 수 신 인 어
「軒轅이授政에蚩尤有兄弟八十一人하야並獸身人語하며

동 두 철 액 식 사 조 오 구 장 도 극 태 노 위 진 천 하
銅頭鐵額하며食沙하며造五丘杖과刀戟太弩하야威振天下하니

치 우 고 천 자 지 호 야
蚩尤는古天子之號也니라」

『단군세기檀君世紀』 서문

행촌杏村 이암李崱 (1297~1364)

위 국 지 도 막 선 어 사 기 막 급 어 사 학 하 야
 爲國之道가莫先於士氣하고莫急於史學은何也
 사 학 불 명 즉 사 기 부 진
 史學이不明則士氣가不振하고
 사 기 부 진 즉 국 본 요 의 정 법 기 의
 士氣가不振則國本이搖矣오政法이歧矣니라.

개 사 학 지 법 가 폄 자 폄 가 포 자 포
 盖史學之法이可貶者貶하고可褒者褒하야
 형 량 인 물 논 진 시 상 막 비 표 준 만 세 자 야
 衡量人物하고論診時像하니莫非標準萬世者也라
 사 민 지 생 쥬 유 구 의 창 세 조 서 역 가 정 증
 斯民之生이厥惟久矣오創世條序가亦加訂證하야
 국 여 사 병 존 인 여 정 구 거
 國與史가並存하고人與政이俱舉하니
 개 자 아 소 선 소 중 자 야
 皆自我所先所重者也라.

오 호 정 유 기 인 유 도 기 가 리 도 이 존 호
 嗚呼라政猶器하고人猶道하니器可離道而存乎며
 국 유 형 사 유 혼 형 가 실 혼 이 보 호
 國猶形하고史猶魂하니形可失魂而保乎아.
 병 수 도 기 자 아 야 구 연 형 혼 자 역 아 야
 並修道器者도我也며俱衍形魂者도亦我也니
 고 천 하 만 사 선 재 지 아 야
 故로天下萬事가先在知我也니라.
 연 즉 기 욕 지 아 자 하 이 시 호
 然則其欲知我인댄自何而始乎아.
 부 삼 신 일 체 지 도 재 대 원 일 지 의
 夫三神一體之道는在大圓一之義하니

造化之神은 降爲我性하고 教化之神은
 降爲我命하고 治化之神은 降爲我精하나니
 고 유인 위 최 귀 최 존 어 만 물 자 야
 故로 惟人이 爲最貴最尊於萬物者也라.

부성자 신지근야 신본어성
 夫性者는 神之根也라 神本於性이나
 이성미시신야 기지형형불매자 내진성야
 而性未是神也오 氣之炯炯不昧者가 乃眞性也라
 시이 신불리기 기불리신
 是以로 神不離氣하고 氣不離神하나니

오신지신 여기 합이후 오신지성여명
 吾身之神이 與氣로 合而後에 吾身之性與命을
 가건의 성불리명 명불리성 오신지성
 可見矣오. 性不離命하고 命不離性하나니 吾身之性이
 여명 합이후 오신 미시신지성
 與命으로 合而後라야 吾身의 未始神之性과
 미시기지명 가건의
 未始氣之命을 可見矣니라.

고 기성지영각야 여천신 동기원
 故로 其性之靈覺也는 與天神으로 同其源하고
 기명지현생야 여산천 동기기
其命之現生也는 與山川으로 同其氣하고
 기정지영속야 여창생 동기업야
其精之永續也는 與蒼生으로 同其業也니라
 내집일이합삼 회삼이귀일자 시야
 乃執一而舍三하고 會三而歸一者가 是也니라.

고 정심불변 위지진아 신통만변
 故로 定心不變을 謂之眞我오 神通萬變을
 위지일신 진아 일신유거지궁야
 謂之一神이니 眞我는 一神攸居之宮也라

지 차 진 원 의 법 수 행 길 상 자 진
知此眞源하고 依法修行하면 吉祥自臻하고

광 명 항 조 차 내 천 인 상 여 지 제
光明恒照하나니 此乃天人相與之際에

연 집 삼 신 계 맹 이 시 능 귀 우 일 자 야
緣執三神戒盟而始能歸于一者也니라.

고 성 명 정 지 무 기 삼 신 일 체 지 상 제 야
故로 性命精之無機는 三神一體之上帝也시니

여 우 주 만 물 혼 연 동 체 여 심 기 신
與宇宙萬物로 混然同體하시며 與心氣身으로

무 적 이 장 존 감 식 촉 지 무 기 환 인 주 조 야
無跡而長存하시며 感息觸之無機는 桓因主祖也시니

여 세 계 만 방 일 시 이 동 락 여 천 지 인
與世界萬邦으로 一施而同樂하시며 與天地人으로

무 위 이 자 화 야
無爲而自化也시니라.

시 고 기 욕 립 교 자 수 선 립 자 아 혁 형 자
是故로 其欲立教者는 須先立自我하고 革形者는

수 선 혁 무 형 차 내 지 아 구 독 지 일 도 야
須先革無形이니 此乃知我求獨之一道也니라.

오 호 통 의 부 여 무 부 여 지 도 연 후
嗚呼痛矣라. 夫餘에 無夫餘之道然後에

한 인 입 부 여 야 고 려 무 고 려 지 도 연 후
漢人이 入夫餘也며 高麗에 無高麗之道然後에

몽 고 입 고 려 야 약 기 시 지 제 선
蒙古가 入高麗也어니와 若其時之制先하야

이 부 여 유 부 여 지 도 즉 한 인 귀 기 한 야
以夫餘에 有夫餘之道則漢人은 歸其漢也며

고 려 유 고 려 지 도 즉 몽 고 귀 기 몽 고 야
高麗에 有高麗之道則蒙古는 歸其蒙古也니라.

오 호 통 의 향 년 잠 청 배 지 사 론
嗚呼痛矣라. 向年에 潛淸輩之邪論이

음 여 백 귀 야 행 이 남 생 발 기 지 역 심
陰與百鬼夜行하야 以男生發歧之逆心으로

상응이합세 위국자억하자안어도기양상
 相應而合勢하니 爲國者抑何自安於道器兩喪하며
 형혼전멸지시호 금 외인간섭지정
 形魂全滅之時乎아. 今에 外人干涉之政이
 거익자심 양위중조 임거농천
 去益滋甚하야 讓位重祚를 任渠弄擅호대

여아대신자 도속수이무책 하야
 如我大臣者가 徒束手而無策은 何也오

국무사이형실혼지고야
 國無史而形失魂之故也니라.

일대신지능 고무가구지위언
 一大臣之能이 姑無可救之爲言이나

이내거국지인 개구국자기
 而乃擧國之人이 皆救國自期오

이구기소이위유익어구국연후
 而求其所以爲有益於救國然後에

방가득이언구국야 연즉구국 하제제
 方得以言救國也니라 然則救國이 何在哉아.

향소위국유사이형유혼야
 向所謂國有史而形有魂也니라.

신시개천 자유기통 국인통이립
 神市開天이 自有其統하야 國因統而立하고

민인통이흥 사학기부중여 서차
 民因統而興하나니 史學이 豈不重歟아 書此하야

낙위단군세기서
 樂爲檀君世紀序하노라.

상지십이년계묘시월삼일
 上之十二年癸卯十月三日에

홍행촌수 서우강도지해운당
 紅杏村叟는 書于江都之海雲堂하노라.

- 이서문은 한민족에 바치는 행촌 이암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서효사활效詞」 (6세 달문단군)

조광선수지 「朝光先受地」에	삼신혁세림 三神赫世臨이로다
환인출상선 桓因出象先하사	수덕굉차심 樹德宏且深이로다
제신의견웅 諸神議遣雄하사	승조시개천 承詔始開天이로다
치우기청구 蚩尤起靑邱하시니	만고진무성 萬古振武聲이로다
회대개귀왕 淮岱皆歸王하니	천하막능침 天下莫能侵이로다

왕검수대명 王儉受大命하시니	환성동구환 懽聲動九桓이로다
어수민기소 魚水民其蘇오	초풍덕화신 草風德化新이로다
원자선해원 怨者先解怨이오	병자선거병 病者先去病이로다
일심존인효 一心存仁孝하시니	사해진광명 四海盡光明이로다

진한진국중 眞韓鎮國中하니	치도함유신 治道咸維新이로다
모한보기좌 慕韓保其左하고	번한공기남 番韓控其南이로다
참암위사벽 巉岩圍四壁하니	성주행신경 聖主幸新京이로다

여칭추극기 如秤錘極器하니	극기백아강 極器白牙岡이오
칭간소밀랑 秤幹蘇密浪이오	추자안덕향 錘者安德鄉이로다

수 미 균 평 위
首尾均平位하야

뇌 덕 호 신 정
賴德護神精이로다

흥 방 보 태 평
興邦保太平하야

조 항 칠 십 국
朝降七十國이로다

영 보 삼 한 의
永保三韓義라야

왕 업 유 흥 룡
王業有興隆이로다

흥 폐 막 위 설
興廢莫爲說하라

성 재 사 천 신
誠在事天神이로다。」

「염표문念標文」(11세 도해단군)

천 이 현 묵 위 대
天은 以玄默爲大하니

기 도 야 보 원 기사 야 진 일
其道也普圓이오 其事也眞一이나라.

지 이 축 장 위 대
地는 以蓄藏爲大하니

기 도 야 효 원 기사 야 근 일
其道也効圓이오 其事也勤一이나라.

인 이 지 능 위 대
人은 以知能爲大하니

기 도 야 택 원 기사 야 협 일
其道也擇圓이오 其事也協一이나라.

고 일 신 강 충 성 통 광 명
故로 一神降衷하사 性通光明하니

재 세 이 화 흥 익 인 간
在世理化하야 弘益人間하라

『삼신오제본기三神五帝本紀』

‘宇宙의 主宰者’ 三神上帝님의 造化 權能

표훈천사 운대시 상하사방 증미견암흑
 表訓天詞에云「大始에上下四方이曾未見暗黑하고
 고왕금래 지일광명의
 古往今來에只一光明矣러라.
 자상계 각유삼신 즉일상제
 自上界로却有三神하시니卽一上帝시오
 주체즉위일신 비각유신야
 主体則爲一神이시니非各有神也시며
 작용즉삼신야
 作用則三神也시니라.

진眞·선善·미美는 삼신三神의 창조創造 덕성德性

고려팔관기 삼신설 운
 高麗八觀記의 三神說에云
 상계주신 기호왈천일 주造化
 「上界主神은其號曰天一이시니主造化하사
 유절대지고지권능 무형이형
 有絶對至高之權能하시며無形而形하사
 사만물 각통기성 시위청진대지체야
 使萬物로各通其性하시니是爲清真大之體也시오
 하계주신 기호왈지일 주교화
 下界主神은其號曰地一이시니主教化하사
 유지선유일지법력 무위이작
 有至善惟一之法力하시며無爲而作하사
 사만물 각지기명 시위선성대지체야
 使萬物로各知其命하시니是爲善聖大之體也시오

중계 주신 기호왈태일 주치화
 中界主神은其號曰太一이시니 主治化하사
 유최고무상지덕량 무언이화
 有最高無上之德量하시며 無言而化하사
 사만물 각보기정 시위미능대지체야
 使萬物로各保其精하시니是爲美能大之體也시니라.

연 주체즉위일상제 비각유신야
 然이나 主體則爲一上帝시니 非各有神也시며
 작용즉삼신야
 作用則三神也시니라.

『태백일사太白逸史』 제2

『환국본기桓國本紀』

시 인개자호위환 이감군위인
 時에 人皆自號爲桓하고 以監羣爲仁하니
 인지위언 임야 홍익제인 광명이세
 仁之爲言은任也니 弘益濟人하고 光明理世하야
 사지임기필인야
 使之任其必仁也라. ...

환국 유오훈 신시 유오사 소위오훈자
 桓國에 有 五訓하고 神市에 有 五事하니 所謂五訓者는
 일왈성신불위 이왈경근불태 삼왈효순불위
 一曰誠信不僞오 二曰敬勤不怠오 三曰孝順不違오
 사왈염의불음 오왈겸화불투
 四曰廉義不淫이오 五曰謙和不鬪라 ...

환국 주 왈 환자 전일야 광명야
 桓國注에曰「桓者는 全一也며 光明也니
 전일 위삼신지능 광명 위삼신지실덕
 全一은爲三神之智能이요 光明은爲三神之實德이니
 내우주만물지소신야
 乃宇宙萬物之所先也니라.」

『신시본기神市本紀』

환櫃 · 단檀 · 한韓의 의미

고 자 천 광 명 위 지 환 야
故로 自天光明을 謂之櫃也오

자 지 광 명 위 지 단 야 소 위 환 즉 구 황 지 위 야
自地光明을 謂之檀也니 所謂櫃은 卽九皇之謂也라

『소도경전본훈蘇塗經典本訓』

선인仙人 발귀리發貴理의 송가頌歌

신 시 지 세 유 선 인 발 귀 리
神市之世에 有仙人發貴理가

여 대 호 동 문 수 학 이 도 기 통
與大皞로 同門受學하고 而道旣通에

유 관 호 방 저 풍 산 지 간 과 득 성 화
遊觀乎方渚風山之間하야 頗得聲華라.

급 관 아 사 달 제 천 예 필 이 잉 작 송 기 문 왈
及觀阿斯達祭天하고 禮畢而仍作頌하니 其文에 曰

대 일 기 극 시 명 양 기 무 유 이 혼 허 조 이 묘
『大一其極이 是名良氣라 無有而混하고 虛粗而妙라

삼 일 기 체 일 삼 기 용 혼 묘 일 환 체 용 무 기
三一其體오 一三其用이니 混妙一環이오 體用無歧라

대 허 유 광 시 신 지 상
大虛有光하니 是神之像이오

대 기 장 존 시 신 지 화
大氣長存하니 是神之化라

진 명 소 원 만 법 시 생
眞命所源이오 萬法是生이니

일 월 지 자 천 신 지 충
日月之子오 天神之衷이라

이 조 이 선 월 각 이 능
以照以線하야 圓覺而能하며

대 강 우 세 유 만 기 중
大降于世하야 有萬其衆이니라

고 원 자 일 야 무 극 방 자 이 야 반 극
故로 圓者는 一也니 無極이오 方者는 二也니 反極이오

각 자 삼 야 태 극
角者는 三也니 太極이니라.

고조선 신교 문화와 책력冊曆의 시원始原

자 부 선 생 발 귀 리 지 후 야 생 이 신 명
紫府先生은 發貴理之後也니 生而神明하고

득 도 비 승 상 측 정 일 월 지 천 차
得道飛昇이라. 嘗測定日月之纏次하고

추 고 오 행 지 수 리 저 위 칠 정 운 천 도
推考五行之數理하야 著爲七政運天圖하니

시 위 칠 성 령 지 시 야 후 창 기 소 우 부 연 기 법
是爲七星曆之始也라. 後에 蒼其蘇가 又復演其法하야

이 명 오 행 치 수 지 법 시 역 신 시 황 부 지 중 경 래 야
以明五行治水之法하니 是亦神市黃部之中經來也라.

우 인 사 우 도 회 계 산 수 교 우 조 선
虞人姒禹가 到會稽山하야 受教于朝鮮하고

인 자 허 선 인 구 견 창 수 사 자 부 루
因紫虛仙人하야 求見蒼水使者扶婁하야

수 황 제 중 경 내 신 시 황 부 지 중 경 야
受黃帝中經하니 乃神市黃部之中經也라

우 취 이 용 지 유 공 어 치 수
禹取而用之하야 有功於治水하니라.

『고구려국본기高句麗國本紀』

신교와 유불선의 정수 집대성 : 다물흥방가

신거자위법혜 후래위상
先去者爲法兮 後來爲上이로다.

위법고 불생불멸
爲法故로 不生不滅이오

위상고 무귀무천
爲上故로 無貴無賤이다.

인중천지위일혜 심여신 즉본
人中天地爲一兮 心與身이 卽本이로다.

위일고 기허기조 시동
爲一故로 其虛其粗가 是同이오

즉본고 유신유물 불이
卽本故로 惟神惟物이 不二로다.

진위만선지극치혜 신주어일중
眞爲萬善之極致兮 神主於一中이로다.

극치고 삼진귀일
極致故로 三眞歸一이오

일중고 일신즉삼
一中故로 一神卽三이로다.

천상천하 유아자존혜 다물기흥방
天上天下에 惟我自存兮 多勿其興邦이로다.

자존고 처무위지사
自存故로 處無爲之事오

흥방고 행불언지교
興邦故로 行不言之敎라.

진명지대생 성통광명혜
眞命之大生이 性通光明兮여

입즉효 출즉충
入則孝하고 出則忠하라.

광 명 고 증 선 무 불 봉 행
光明故로 衆善을 無不奉行이오

효 충 고 제 악 일 절 막 작
孝忠故로 諸惡을 一切莫作하라.

유 민 지 소 의 내 국 위 중 혜 무 국 아 하 생
惟民之所義는 乃國爲重兮여 無國我何生고

국 중 고 민 유 물 이 위 복
國重故로 民有物而爲福이오

아 생 고 국 유 혼 이 위 덕 이라.
我生故로 國有魂而爲德이라.

혼 지 유 생 유 각 유 령 혜
魂之有生有覺有靈兮여

일 신 유 거 지 위 천 궁
一神攸居之爲天宮이로다

삼 혼 고 지 생 가 이 쌍 수
三魂故로 智生을 可以雙修오

일 신 고 형 혼 역 득 구 연
一神故로 形魂을 亦得俱衍이라.

비 아 자 손 선 위 방 혜
俾我子孫으로 善爲邦兮여

태 백 교 훈 오 소 사
太白敎訓이 吾所師로다.

아 자 손 고 통 무 불 균
我子孫故로 統無不均이오

오 소 사 고 교 무 불 신
吾所師故로 敎無不新이라.



주최 : 대한역사바로찾기범국민운동본부

후원 : STB상생방송, 상생문화연구소, 상생출판